

M&A 활성화 대책 B1면에서 계속

기업 일부 사업만 떼내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규제는 삼성·현대 등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제한하고자 만든 규제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자산 5조원을 넘어선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보고펀드 등 5조원에 근접한 사모펀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가 기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 부문만 따로 떼내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를 들어 현대상선이 분사 없이 LNG선 사업 부문만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업 구조조정도 촉진될 전망이다. 예컨대 포스코·현대제철·남부발전 등이 STX팬오션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해운사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모펀드의 중소·벤처투자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도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기업이든 펀드든 M&A를 통해 코스닥 기업 지분을 50% 넘게 인수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이 가진 부동산도 함께 취득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의 ‘성장 사다리펀드’ 내의 M&A펀드 비중을 4000억원에서 3년 내에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의 실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M&A가 촉진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장에 이덕훈씨 임명



기획재정부는 이덕훈(65·사진) 전 우리은행장이 신임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행장은 서강대 수학과·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투자신탁 사장, 한빛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우리은행장,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냈다. 선정민 기자

# “벤츠 전기자동차 연내 출시… 친환경차 元年될 것”

(B클래스 2·5인승)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술 총괄 토마스 웨버 박사는 “신형 S500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네바모터쇼

친(親)환경차 개발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화두(話頭)이다. 친환경차는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폭발적인 전후방 연관산업 효과로 말미암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친환경차 분야의 최전선에서 경쟁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전기차 개발 총책임자를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 만났다.



닐스 볼처스 BMW 전기차 프로젝트 총괄은 “i3는 이전 BMW 차와 디자인이 다르지만 가속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다임러그룹 R&D 首長 웨버 박사

올해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친환경차 분야에 박차를 가하는 원년(元年)이 될 전망이다.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그룹 이사 회 멤버이자 그룹 R&D(연구·개발) 수장(首長)인 토마스 웨버(Weber) 박사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제네바 모터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가을 신형 S500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차량은 연비가 유럽 기준 33.3km/L에 달하며, 3L짜리 가솔린 터보 엔진과 80kW 전기모터로 달리는 차다.

웨버 박사는 “C클래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SUV도 잇따라 선

한번 충전하면 200km 달려 가을엔 연비 33.3km/L 달하는 신형 S500 하이브리드 시판

보여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C클래스는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車種)으로 C200 모델의 경우 현재 CO<sub>2</sub>배출량이 1km당 159g 수준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km당 92g으로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는 “순수 전기차 분야에서 B클래스 2·5인승을 올해 출시할 것”이라며 “B클래스 2·5인승은 한 번 충전하면 2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벤츠가 전기차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웨버 박사는 주목하는 경쟁자로 테슬라의 모델 S와 BMW의 i3와 i8, 닛산 리프를 꼽았다. 다만 그는 “생각만큼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 수요도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유럽이나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충전 시설 같은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해결되고 관련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벤츠는 친환경차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차(FCV·Fuel Cell Vehicle)도 포드·닛산과 협력해 제품을 개발 중이다. 그는 “FCV는 전망이 밝은 분야로 시장에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정한국 기자

## “BMW, 삼성과 전기자동차용 차기 배터리 개발중”

전기차 i3 개발 주도한 볼처스 총괄

“이 차를 만드는 5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BMW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BMW의 i3는 현재 전기차(電氣車)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작년 말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1만1000대 넘게 팔렸다. 구입하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 대당 3만4950유로(약 5099만원)의 가격에 최고 출력 17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7.2초가 걸리는 동

력 성능도 갖췄다.

4일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 만난 닐스 볼처스(Nicola Pichler) BMW 전기차 프로젝트 총괄은 “i3는 아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만든 차였다”며 “충전과 완전히 차별화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도 BMW 특유의 운전하는 즐거움과 가속감을 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특히 i3가 조기에 성공을 거두면서 이 차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삼성SDI와의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볼처스 총괄은 “당분간 다른 배터리 업체와 협력할 계획이 없고

삼성과 성능이 더 우수한 차기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며 “향후 신형 i3가 나오면 장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3는 글로벌 시장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선보이는 첫 순수 전기차다. 아직 이 분야에서 경쟁자라고 꼽힐 만한 차는 없다. 하지만 볼처스 총괄은 “출시를 앞둔 벤츠 B클래스 전기차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폴크스바겐의 e골프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용만 商議회장 “정부·기업 상시 협력 채널 만들어야”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용만 회장(맨 오른쪽)은 “정부가 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시 협력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왼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투자세액공제 확대 검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2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방 기

업의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다음 주 중 개최될 예정인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2%에서 4%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 등 각종 시설에 공제율도 중소기업에 적용

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줄 계획이다.

지방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조원 규모의 펀드는 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에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정민 기자

### 해외直購 불만 1년새 31% 증가

“반품때 수수료 너무 때” 최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불만 1년 새 30%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 직접 구매를 했다 소비자원에 불만을 접수한 건수가 1551건으로 2012년 1181건에 비해 31.3%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불만 접수를 올해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원은 1월 한 달 동안 211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는 작년 한 해 1조원 규모에 달했고 5년 뒤에는 8조원까지 시장이 불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일곱 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 1066건을 분석했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반품할 때 배송료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29.5%)이었다.

구매 취소와 환불을 늦게 처리하거나 아예 거부한다(26.4%), 배송이 늦고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된다(19.0%)는 불만도 많았다. 이외에 제품 자체의 불량이나 파손, 구입 후 수리 등 서비스 불가(11.8%), 구매 대행업자의 연락 두절(6.4%) 등도 불만의 이유로 꼽혔다.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사는 물건은 의류, 신발, 가방(7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태근 기자



**THE 13th CHINA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 제13차 중국 국제 소비전자 박람회

2014년 7월 11-14일 중국·청도

중국 국제 소비전자 박람회(SINOCES)는 중국 국무원(한국의 총리실 해당)의 개최 허가를 받은 중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급 소비전자 박람회입니다. 2001년 첫 행사 이래 SINOCES는 12차례 개최해 오면서 기업의 산업정보취득, 기술교류, 신상품발표, 무역협력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 담당해 왔습니다. 2014년 07월 제13차 SINOCES를 개최하는 청도시에서는 한국 유망 기업의 많은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  
중국 상무부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 과학기술부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

**주관 :**  
중국 전기기계 상품 수출입상회  
중국전자학회  
청도시 인민정부

**집행 기구 :**  
SINOCES 조직위원회

**전시 분야**

- 가전
- 디지털 영상
- 정보통신 / 산업전자
- 휴대용 근무 시스템
- 이동 무선 통신
- 공업 디자인
- 신기술
- 3D기술
- 멀티미디어 & 디지털 소비자 가전
- 오디오/비디오 상품
- 전자부품 소재
- 자동차용 전자
- 컴퓨터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적용
- Storage Solutions
- 전자상거래
- 로봇

**중국 국제 소비전자 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소 : Rm.2102,Bldg A,World Trade Center,No.6  
Hongkong Middle Road, Qingdao 266071  
전화 : 0086-532-85910982 / 85910985  
팩스 : 0086-532-85910988  
Email : sherry.shan@sinoces.com  
URL : www.sinoces.com

**한중협회 컨벤션 사무국**  
참가신청 : 02-6271-7702  
이 메 일 : sinoces@koreachina.kr  
홈페이지 : www.koreachina.kr

**한솔전람주식회사**  
참가신청 : 02-895-8230  
이 메 일 : campngrvs@naver.com

중국 최대의 소비전자 박람회 CHINA'S PREMIER CONSUMER ELECTRONICS SHOW FOR INDUSTRY PROFESSIONALS